

바로크 하우스 콘서트

Boy Soprano 김민준 독창회
(Boy Soprano Minjun Kim's Recital)



2011. 12. 1 (목) 오후 7시 30분 (주)한국 바로크악기 (02-582-1011)

Program

Sacred Songs (종교가곡)

Panis Angelicus	C. Frank
Quando Corpus - from Stabat Mater	G. B. Pergolesi
Pie Jesu – from Requiem	G. Faure
Mein glaubiges Herze - Soprano Aria from Cantata BWV 68	J. S. Bach

Recorder Solo (리코더 독주)

Greensleeves to a Ground	Anon.
Sonata in G	W. Croft

Art Songs (예술가곡)

An die Musik	F. Schubert
보리 밭	윤용하
Maria Wiegenlied	M. Reger
Wiegenlied	J. Brahms

Program Notes

Panis Angelicus (생명의 양식) – C. Frank (1822-1890)

1860년 자신의 합창장으로 있던 성가대를 위해 프랑크는 소프라노, 테너, 베이스, 오르간 첼로, 더블베이스의 특이한 조화를 이룬 미사곡을 작곡하였으나 큰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그로부터 11년이 지나서 그는 자신의 만족스럽지 못한 미사곡에 붙일 Panis Angelicus를 작곡하였으며 이 곡은 작곡가 특유의 아름답고 세련된 멜로디로 인해 그의 작품 중 가장 많이 연주되는 곡이 되었다.

Quando Corpus (이 몸이 죽을 때에) – G. B. Pergolesi (1710-1736)

Stabat Mater(슬픔의 성모)는 페르골레지의 대표작이며 시와 음악의 완벽한 결합을 이루었으나 그가 죽음을 맞이하던 해에 쓰여 결국 미완으로 남겨지게 되었다. '이 몸이 죽을 때에'은 12개의 장으로 나누어진 맨 마지막 부분의 곡으로 Leonardo Leo가 완성시켰다. 투명 간결하고 아름다운 선율이 곡 전반에 흐르며 슬픔과 천국의 아름다움이 동시에 느껴지는 놀라운 곡이다.

Pie Jesu (자비로운 예수)– G. Faure(1845-1924)

피에 예수(자비로운 예수)는 가브리엘 포레가 작곡한 진혼곡(Requiem) 중 제 4 곡으로 상투스(거룩하시도다)와 아뉴스 데이(하느님의 어린 양) 사이에 연주된다. 이 곡은 맑고 깨끗하며 고요하고 경건한 기도 그 자체라고 밖에 할 수 없는 소프라노 독창인데, 대부분의 보이 소프라노들이 주요 레퍼토리로 자주 부르는 애창곡이기도 하다.

Mein Glaubiges Herze (내 신실한 마음은) – J. S. Bach (1685- 1750)

이 곡은 바흐의 교회 칸타타 작품 68 번 중의 소프라노 아리아로서 오순절을 축하하기 위한 성신강림 대축일의 첫 월요일에 연주되었으며 기쁨에 넘친 감정을 노래하는 곡이다. 이 밝고 경쾌한 아리아는 첼로의 움직이는 베이스 선율과 함께 연주되어지며 노래에 이어 사실상의 트리오 소나타 (바이올린, 오보에, 첼로)로 연결되어 맑고 활기찬 느낌의 분위기로 유지되면서 끝난다.

Greensleeves to a Ground (그린 슬리브스 변주곡) – Anon (17C)

그린슬리브스는 영국의 전통 민요이며 엘리자베스 시대 영국 이전부터 이미 잘 알려진 곡이다. 이 기악 변주곡에 선 노래에서와는 달리 주제에 이은 변주가 총 14 개로 이루어져 있는 매우 목가적이며 서정적인 멜로디의 곡이다. 보통 소프라노나 알토 리코더로 자주 연주된다.

Sonta in G – W. Croft (1678-1727)

윌리엄 크로프트는 영국의 오르간 연주자, 작곡가로서 바로크 양식의 교회음악을 많이 작곡하였다. 이 소나타는 가벼운 곡에 속하는데, 총 6 개의 소나타 세트 중의 한 곡이며 1700 년도에 출판이 되었다. 곡의 전체적인 느낌은 반복되는 베이스의 그라운드 선율(17C 의 대표적인 바로크 음악형식)과 함께 연주되는 리코더의 변주에 특징이 있으며 이는 지그 형식으로 마무리 된다.

An die Musik (음악에 붙임) D. 547 – F. Schubert (1797-1828)

이 곡은 슈베르트가 20 세 때인 1817 년에 쇼버의 시에 곡을 붙인 것으로서 극히 단순하면서도 깊은 감명을 준다. '아름답고 즐거운 예술이여, 마음이 서글퍼진 어두운 때 고운 가락 고요히 들으면 언제나 즐거운 마음 솟아나 내 방황하는 마음 사라진다.' 라는 음악에 대한 순수한 감사의 마음이 소박하게 표현되고 있다.

보리밭 – 윤용하 (1922-1965)

1950 년대에 부산에서 쓰여진 곡으로 소박한 시가 지니는 서정성과 선율이 지니는 종교성이 잘 조화를 이룬 노래로 곡은 4 분의 4 박자 내림나장조이며 가사는 통절(通節)로 되어있다. 부르기에 그다지 까다롭지 않고 또 가락과 가사가 서민적인 데서 독창은 물론 합창곡으로도 편곡되어 각계각층에서 널리 애창되고 있다.

Maria Wiegenlied (마리아의 자장가) – M. Reger (1873-1916)

막스 레거의 중기작품으로 이 곡이 수록되어 있는 Op. 76 <소박한 노래> 중 '어린이를 위한 9 개의 가곡' 에 포함되어 있다. 이 노래는 피아노를 반주로 하는 독창곡으로 종교적 아름다움과 아기 예수를 안은 마리아의 성스러운 모습을 느끼게 한다. 처음부의 반복되는 리듬이 마치 요람을 부드럽게 흔드는 듯한 효과를 주고 있으며 이로 인해 듣기에 편안하고 매우 친근하다.

Wiegenlied (자장가) – J. Brahms (1833-1897)

이 곡은 젊은 브람스가 자신의 친구 베르타 포르브츠키의 아이들을 위해 만든 자장가로 브람스는 자신의 작품 < 피아노를 위한 16 개의 왈츠> 에서 15 번째 곡을 골라 이 자장가를 만들었다. 그 후 이 곡은 작품번호 39 로 <5 개의 자장가> 중의 하나로 실리게 되었다.

Profile

Boy Soprano: 김민준

서울 잠원 초등학교 졸, 현 방배중학교 재학 중,
천주교 서울대교구 청소년국 소속 '마니피카트(Magnificat)어린이합창단' 단원으로 활동 중
2011. 5. 27 서울 발산동성당 PBC 음악회(PBC 녹화방송)에서 마니피카트 어린이 합창단의 연주
중 M. Haydn- Dona nobis pacem 곡 중 소프라노 솔로 및 2011. 11. 22 마니피카트 어린이합
창단 정기연주회(서울 압구정동 성당)에서 A. L. Webber- Pie Jesu 곡 중 소프라노 솔로
사사: 김호정

Piano & Harpsichord: 이빛나

선화예고 졸, 성신여대 음대 및 동 대학원 졸 (피아노 및 반주 전공)

Recorder: 송상은

선화예고 졸, 경희대 음대 기악과 졸, 성신여대 음대 대학원 석사과정 수료(플루트 전공).
미국리코더협회 회원(ARS Performance Exam III 인증시험 합격),미국 리코더 교사협회 최초
의 한국인 교사회원. 미국 아틀란타에서 리코더와 플루트 독주회, 금호아트홀 리코더 독주회
및 다수 초청 연주, 마니피카트어린이합창단 CD<AGNUS DEI 하느님의어린이양> 리코더협연녹음
(바오로딸,2009.5 발매)

현) 서울성모병원 자원봉사센터의 봉사자 리코더 앙상블 'de Angelis'의 지도강사로 활동 중

V. Cello: 조재형

선화예고 졸. 경원대 4학년 재학중(전학년 장학금). 서울대 대학원 입학 예정.
부산 콩쿨 3위, 음악저널, 한양대 콩쿨 입상. 리히트 캄머, 카메라타 앙상블과 협연
Berlin - Brandenburgisches Sinfonie Orchester (베를린 브란덴부르크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Kammermusiksaal der Berliner Philharmonie (베를린 필하모니홀 챔머뮤직 잘)에서 협연

